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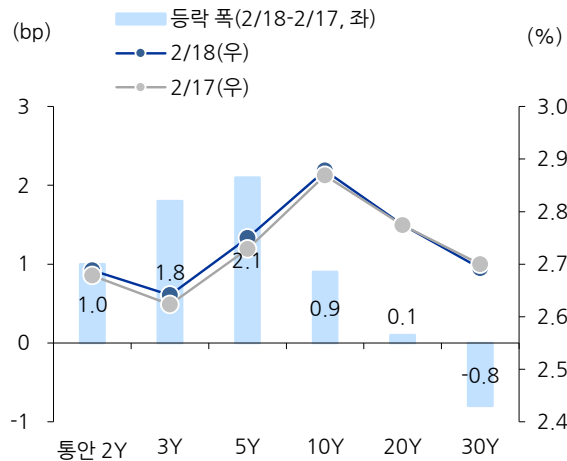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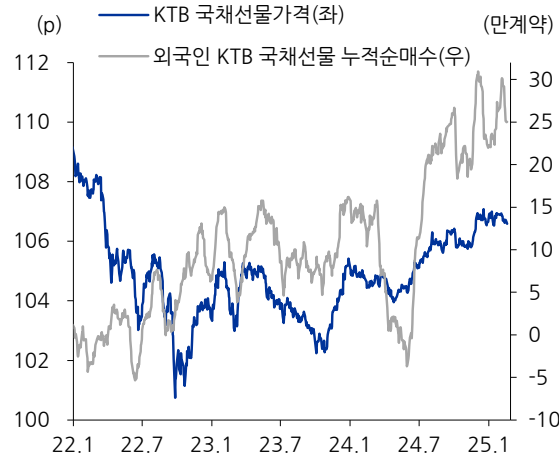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2/1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41%	1.8	0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78%	0.9	2.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3.7	24.6	21.6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59	-6.0	-11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8.01	-11.0	-29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11%	5.0	3.7
	미국채 10년물	4.551%	7.5	5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4.0	21.6	22.4
	독일국채 10년물	2.495%	0.9	6.7
	호주국채 10년물	4.504%	4.9	11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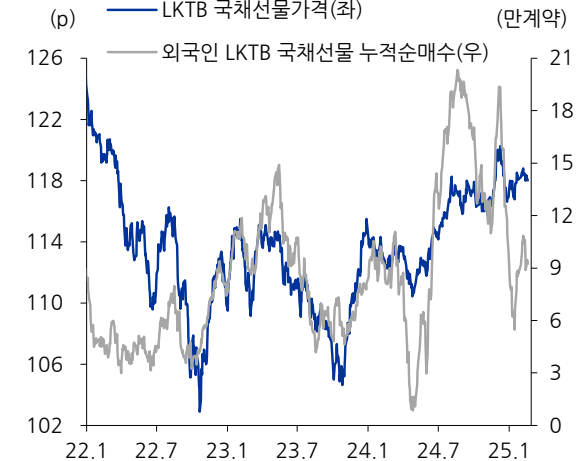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아시아장 중 상승한 미국채 금리에 연동.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은 총재 발언을 주시하며 장 중 변동성이 나타남
- 한은 총재, 올해 성장률 1.6% 수준을 다시 보고 있다고 언급. 금리 인하 사이클임에도 향후 시점은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한다는 발언에 2월 인하 의구심 확산
- 추경 규모는 15~20조원이 적절하다는 입장 재확인.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관세 부과 모두 고려된 수치. 야당이 주장한 35조원 추경 집행시 내년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, 적절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연이은 연준 측 매파 발언과 예상을 상회한 뉴욕주 제조업 지수 여파로 금리 상승
- 전일과 이날 중 월러 이사, 보먼 이사,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공통적으로 물가 충격이 완화될 때까지 통화정책이 제약적일 필요를 언급.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금리 동결을 선호
- 뉴욕 제조업 지수는 전월비 18.3p 급등하여 5.7을 기록.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동시에 예상치(-1)을 대폭 상회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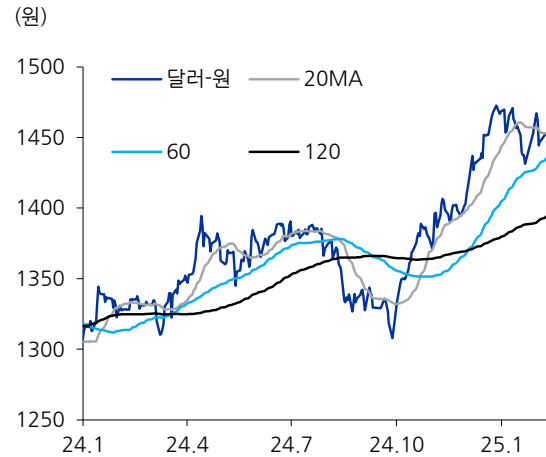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2/18일	1D	1W	YTD
원/달러	1,443.70	0.1%	-0.6%	-2.0%
달러지수	107.04	0.3%	-0.8%	-1.3%
달러/유로	1.045	-0.4%	0.8%	0.9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8	0.1%	-0.5%	-0.8%
엔/달러	152.03	0.4%	-0.3%	-3.2%
달러/파운드	1.261	-0.2%	1.3%	0.7%
헤알/달러	5.69	-0.5%	-1.4%	-8.1%
WTI 근월물(\$)	71.85	1.6%	-0.6%	0.2%
금 현물(\$)	2,933.52	1.2%	1.2%	11.8%
구리 3개월물(\$)	9,475.00	0.8%	1.3%	8.1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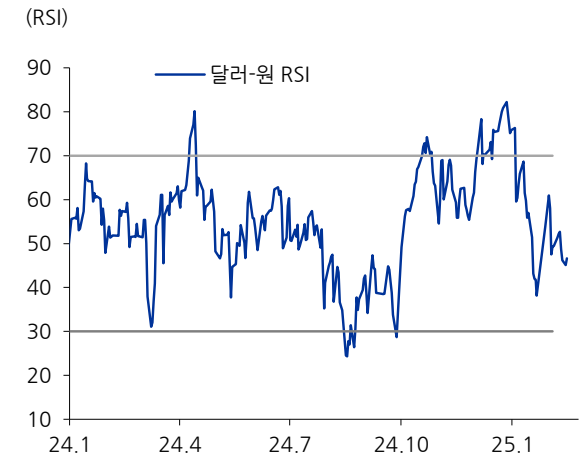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2.00원 상승한 1,443.7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9.50원 마감.
- 간밤 미국 금융시장 휴장 영향으로 달러-원은 보합권에 서 출발. 그러나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을 소화하며 장 초반부터 상승폭 확대. 월러 이사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.
- 그러나 전반적인 재료 부재 속에 달러가 강세 일변도로 돌아서지는 않았음. 장중 RBA는 4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호주 통화 약세는 제한. 국내 증시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코스피는 +0.6% 상승 마감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속 반등.
- 전일 아시아 개장 전 월러 인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꺼낸 데 이어, 이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에 동참. 데일리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제약적이나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.
-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장 마감 후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가 25% 정도 될 것이며,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발언.
-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5.7로 전월(-12.6) 대비 급등했으며, 지불 가격지수는 23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. 주택경기지수는 4개월 만의 최저치로 하락.